

〈제 522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은행

◆ 광주은행 KJ카드, 새해 첫 이벤트 ‘100일의 약속’ 실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3일 KJ카드 개인 신용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2019년 한 해 동안 ‘100일의 약속’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100일의 약속’ 이벤트는 응모 후 100일과 응모 전 100일을 비교하여 추가로 이용하신 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 추가 이용시 1만원, 500만원 이상 추가 이용시 5만원을 캐시백 해준다.

이벤트 응모는 광주은행 홈페이지와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고객센터(1588-3388, 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금호고속

◆ 임직원 급여 끝전 이웃돕기



금호고속(대표 이덕연)은 지난해 23일 올 한 해 임직원들이 모은 급여 끝전으로 1,200만원을 마련해 500만원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나머지 금액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올 한 해 금호고속 임직원들이 모은 급여 끝전과 62년이 지나 버스 요금을 지불해 화제가 되었던 김봉주 할아버지(78세)의 10만원이 더해져 마련됐다.

금호타이어

◆ 핑크박스 지원사업 다시 한번 참여



금호타이어(대표 전대진)가 지난해 2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진행한 핑크박스 지원 사업에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했다고 밝히며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 건강 지키기에 다시 한 번 나섰다.

핑크박스 지원사업은 2016년 발생한 '깎창 생리대' 이슈 이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며,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금호타이어는 저소득가정의 10~19세 소녀들을 대상으로 생리대, 바디용품, 파우치 등 사춘기 여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여성용품을 지역 내 꼭 필요한 기관, 학교 등에 전달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 산타원정대 어린이 소원 들어주기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박래석) 노사는 지난해 24일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산타 원정대 어린이 소원 들어주기' 후원금으로 2,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노사 대표 박래석 기아차 광주 공장장과 나태율 기아차 노동조합 광주지회장이 최영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 지역본부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광주지역 저소득층 어린이 200명의 선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며 선물은 크리스마스에 아이들 품으로 전달되었다.

대우전자

◆ 마케팅 공모전 시상식



대우전자(대표이사 안중구)가 지난해 21일 서울 대유타워 대회의실에서 '브랜드 마케팅 대학생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우전자의 '탱크 주의'를 잇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

됐으며, 총 98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10개 팀이 최종 PT에 나섰고 4명으로 구성된 계명대학교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계명대 팀에는 500만원의 상금과 팀 리더에게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럭키산업

◆ 전남대 발전기금 기탁



(주)럭키산업(회장 박홍석)이 지난해 26일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한상원 회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

그가 기탁한 1억원은 광주시 빛고을 장학재단으로 지정 기탁된다.

앞서 박 회장은 10억여 원을 기탁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왔고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사)21세기 여성발전위원회 국민모범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보해양조

◆ YG와 손잡고 中오프라인 시장 공략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지난 3일 YG와 손잡고 만든 탄산주 ‘크렁크바’ 2종(피스타치 소다, 캔디밤)이 중국 가족형 노래방 체인인 ‘HAOLEDI(好乐迪, 하올러디)’에 입점했다 밝혔다.

크렁크바는 20~30대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 탄산주로 베트남 등 해외에서 먼저 주목 받고 있는 탄산주이다. 보해양조와 YG는 크렁크바가 가진 장점을 이용하여 중국 20~30대 젊은층으로부터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가족형 노래방 체인인 하올러디 입점 등 2019년 초까지 10만 개 수출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보해는 하올러디에 입점해서 중국 젊은층에 인지도를 높이면 해외시장에서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일건설

◆ 화순전남대병원에 미디어 아트 기증



삼일건설(주)(회장 최갑렬)가 지난해 26일 환자·보호자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 되는 대형 미디어 아트작품과 모니터 등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기증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정신 원장과 최갑렬 회장 등 삼일건설과 병원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기증된 작품은 국제적 명성이 높은 ‘뉴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화제작으로서, 프랑스 화가인 조르주 쇠라의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와 ‘그랑드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라는 두 작품을 융합한 ‘크로스오버 쇠라’였다.

해양도시가스

◆ 사회복지시설 무상 지원



해양도시가스(대표이사 김형순)는 지난해 27일 도시가스업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공급권역 내 사회복지시설 6곳에 가스 기기와 내부시설 배관공사비를 무상지원 했다.

사회복지시설 가스기기 지원사업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스건조기 등 도시가스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번 가스기기 지원은 광주애육원, 귀빈민들레 집과 노틀담형제의집, 다솜장애인, 푸른숲그룹홈, 동산그룹홈 등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가스식기세척기, 가스밥솥, 가스건조기 등 다양한 가스기기가 지원됐다.

II. 광주경충 소식

〈제1424회 금요조찬포럼〉

○ 광주경충 2019 신년인사회 겸 특별강연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월4일 오전 7시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초청 신년인사회 겸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민선 7기 광주시는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라는 비전과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라는 시정목표를 설정하고, 양대 정책수단으로 ‘광주다움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3대 시정가치로 ‘혁신·

소통·청렴’을 제시하였다. 또한, ▲풍요로운 광주 ▲정의로운 광주 ▲따뜻한 광주 ▲품격 있는 문화광주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 등 5대 정책방향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2019년 10대 핵심시책으로 첫째,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자동차·에너지·문화 등 3대 밸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사업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 둘째,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셋째,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자영업자들의 사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넷째, 문화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 광주성장의 엔진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육성하겠다. 다섯째, 도시철도 2호선 상반기 착공, 광주-대구 내륙철도와 경전선 건설 등 SOC 확충으로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공항 이전 종전 부지를 스마트시티와 국제테마파크로 재탄생시킬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여섯째,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를 위한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광주천 가꾸기 사업’으로 광주천을 시민 모두의 생활공간이자 사랑받는 명소로 재탄생 시키겠다. 일곱째, 광주다운 도시재생을 통해 광주를 회색도시에서 디자인 도시로 변모시키겠다. 여덟째, 광주를 자원봉사도시로 만들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실현하겠다. 아홉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열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안전한 광주를 만들겠다.

국가적 과제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2019년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무국 일지(12.31 ~ 01.04)

1. 2 (수)	● 1월 고용전략회의 및 사무국 회의	1. 4 (금)	● 신년인사회 및 특별강연
1. 3 (목)	● KBS라디오 인터뷰(경제평가 및 전망) ● 광주상의 신년인사회 ● 일가정 양립 용역 토론회		

1. 노사동향

■ 고용부 · 노동계는 신년사를 통해 2019년 정책 및 사업방향 제시

- 대통령은 1. 2 청와대 신년회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표명
-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일자리 기회 확대, ▲노동존중 사회 실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 적응 준비에 집중 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참고〉 이재갑 고용부 장관 신년사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일자리 기회 확대	▲ 일자리 예산 22조 9천억원 규모 - 지역 · 산업 · 대상별 특성에 맞게 추진 ▲ 자동차업종 고용상황 대응 체계 마련 - 중소 부품업체 밀집 지역 중심으로 고용상황 신속 대응
노동존중 사회 실현	▲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 근로시간 단축 · 최저임금 인상 현장 안착 집중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입법화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원청업체 책임 대폭 강화
미래 노동시장 적응 준비	▲ 특수형태종사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실업급여 보장 수준 향상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2019년에는 현장 조직화를 강화하는 한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집중한다는 방침 발표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채 방향을 바꾸려 한다고 비판하며 재벌특혜 동맹을 깨뜨리고 사회대개혁을 쟁취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 발표

〈참고〉 2019년 노사관계 불안 요인



- 2019년 임단협은 ‘임금인상’ (36.2%),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 (16.0%)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 단체교섭 관행 중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동계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 (44.5%)를 가장 많이 선택

■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성과급을 포함한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임·단협 합의 도출에 난항

- KB국민은행 노사는 '18. 9월부터 12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노조는 1. 8 총파업 예고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노조 찬반투표 결과 : 조합원 1만 4343명 중 1만 1990명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1만 1511명(96.01%)의 찬성으로 가결

- 노조는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성과급 300% 지급, ▲페이밴드 폐지를 요구

※ 페이밴드 : 일정 기간 안에 직급 승진을 하지 못하면 임금이 오르지 않는 연봉제의 일종

〈참고〉 KB국민은행 노사 주요 입장

회 사	노 조
▲ 전 직원 만56세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 부점장은 만55세 생월의 다음 달 첫 날부터, 팀원은 만56세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 성과급 기준 제도화
▲ 성과급 기준 제도화	▲ 기본급 300%을 성과급으로 지급
▲ 현행 2014년 신입행원부터 적용 중인 페이밴드 전 직급으로 확대	▲ 페이밴드 폐지

- 노조는 총파업 전에 사측과 합의가 성사될 경우 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

2. 판례동향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해야 함(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486 판결).

1. 사실관계

- 자동차부품생산업체 H사 대표 T는 근로자 A,B에 대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근로자 A,B는 주휴수당과 토요일 4시간분의 약정유급휴무수당이 포함된 월 기본 급여를 다음과 같이 받음

※ 상여금 및 시간외근로수당 별도 지급

〈참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 급여 구성

대 상	근로시간 구성	월 임금
근로자 A	226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 4.34주	1,121,250원
근로자 B	226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 4.34주	1,103,350원

- 1심 법원은 월 173.8시간을 기준으로 토요일 4시간분의 약정유급휴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주휴수당의 합산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때 A,B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T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참고〉 이 사건 1심 법원 판단

대 상	근로시간 구성	기준시간	시간급여
근로자 A	1,035,025원	173.8시간	5,955원
근로자 B	1,018,502원	173.8시간	5,860원

※ 비교대상임금 = 기본급 + 주휴수당

2. 판결요지

〈 최저임금 준수 확인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여부 : 적극 〉

-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함.
- 원심은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 H사의 주휴수당을 가산하여 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면 해당기간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비교대상임금 환산방식은 정당함.

3. 시사점

- 해당 판결로 대법원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07년 판례(대법원2007.1.11. 선고 2006다64245)의 법리를 재확인함.
- 시간급 환산을 위한 기준시간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지 않았으나 1·2심 및 대법원 모두 주휴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173.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끝.